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의로움(義)의 이면적 의미

-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다 - 유형을 중심으로

류명옥*

|| 차례 ||

- I. 서론
- II.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유형 설화의 전승 양상
- III.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해 본 ‘간통과 ‘용서’의 실상
- IV. 설화에 나타난 ‘의로움’의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의 유형 중에서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설화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 설화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내의 간통 장면을 목격한 남편이 아내와 姦夫를 용서하는 훌륭한 인품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남편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姦夫와 남편이 서로 의형제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를 통한 의로움의 행위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주목받는 모습일 뿐 실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혼인 약속을 파기당한 姦夫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 모습은 이해받지 못하고, 간통을 저지른 행위로 인해 도덕적이지 못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다른 남성 인물인 간통한 아내의 남편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두 남성은 윤리 도덕적인 규범에서

* 경북대학교 강사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억압받고 강요당하는 것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간통의 이야기에서 대부분 징치당하고 비판받는 대상은 여성이었다. 자신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여성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간통 이야기의 핵심이었지만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설화에 나타나는 ‘간통’ 과 ‘용서’ 의 의미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억압을 당하던 남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였으며, 두 남성의 모습을 모두 긍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설화에서 드러나는 의로움의 의미는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위를 한 남성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상적인 윤리 규범을 실천하기를 강요당하는 남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설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간통, 구비설화, 의로움, 이면적 주제, 용서

I. 서론

남성과 여성이 부부의 인연을 맺는 혼인은 인간의 일생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인연을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흔히 결혼한 부부가 윤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불륜이라고 한다. 불륜의 문제는 혼인의 이야기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 없이 이야기되어지는 소재이다.

설화의 이야기 속에서도 부부가 윤리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흔히 ‘간통’ 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지며,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건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 소재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간통사건에 있어서 항상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여성’

이라는 것이다. 간통을 다룬 여러 설화에서 남성의 횡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간통 당하게 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대부분 남성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여성들의 정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연구자들이 그 안에서 여성의 주체성이나 섹슈얼리티를 밝혀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설화에서 ‘간통’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기숙¹⁾은 야담 속에서 남녀 간의 섹슈얼리티의 관계성과 권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 성과 사랑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홍나래²⁾는 ‘간통’ 소재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간통 소재를 다룬 설화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화사적 의미를 밝히고 있어서 ‘간통’ 설화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 본고와 비슷한 논의로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를 분석한 연구³⁾는 ‘용서’를 한다는 행위는 같지만 그 용서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같은 ‘간통’ 소재라도 그 의미는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설화에 나타나는 성(性)의 문제에 대해 고찰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고의 ‘간통’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앞의 연구들은 여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거나, ‘간통’ 소재의 설

1)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 -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간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0권, 한국여성문학회, 2003.

2)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3)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화에 나타나는 가족관계와 문제 해결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간통’ 소재나 성(性)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이고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성(性) 또는 ‘간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남성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는 제도와 규범이 곧 남성과 대등한 의미로 도식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함께 정절이데올로기 담론이 중요시되던 시기에 간통한 여성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었으며, 남편인 남성에게는 간통한 여성을 정치하거나 용서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간통’ 소재의 설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윤리적인 부분들을 강요해왔다. 그리하여 정절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은 억압받고 억눌려 살아온 모습만이 부각되어 있다. 물론 여성들에게 윤리적인 부분을 강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남성들은 정절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의 설화에서 간통한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 남편에게 쉬운 일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화의 마지막 부분에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 후에 벼슬에 등용되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편이 벼슬에 등용되는 것으로 부부의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로 부부의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은 올바른 부부 갈등의 해결법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

다’ 유형의 설화를 대상으로 삼아 용서를 통해 드러나는 남성의 의로운 행위의 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며, 이 설화에서 여성 못지않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남성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담론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 설화의 전승 양상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의 설화는 외간 남성이 방물장수로 여복을 하여 여성을 만난 후 동침하게 되는데, 아내가 외간 남성과 동침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이 아내와 姦夫를 용서해 주고 후에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는 이야기이다.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의 설화는 구전설화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5편이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구전 설화의 목록과 설화의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화의 제목	제보자	대계번호
1	동서동방(同嫖同房) 이야기	신승철(남/ 67세)	3-2 (충북편)
2	동서동방(同嫖同房)하고도 맺은 의형제	이이룡(남/ 82세)	3-4 (충북편)
3	신랑의 아량	조상묵(남/ 79세)	4-3 (충남편)
4	포용력 있는 판서 이야기	이현옥(남/ 64세)	7-12(경북편)
5	김씨와 이씨의 혼약	여종한(남/ 68세)	8-14(경남편)

- ① 姦夫가 여성과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복(女服)을 한 후 방물장수가 되어 여성의 시가(媼家)에 들어가 여성을 만난다.

- ② 姦夫와 여성은 서로를 확인한 후 동침하고 몇 일을 함께 지내게 되고, 시가(媿家)식구들(이웃)은 姦夫가 여성이 아님을 눈치 채고 절에 공부 하러 간 남편을 집으로 부른다.
- ③ 집에 돌아 온 남편은 아내가 姦夫와 함께 자는 모습을 목격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姦夫를 그대로 두고 나와서 가족들에게 시치미를 떼고 사통한 일을 눈 감아 준다.
- ④ 후에 아내의 남편과 姦夫가 벼슬에 등용되어 조정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姦夫는 사통한 일을 마음에 걸려하지만 아내의 남편은 모른척 해주거나 오히려 의형제를 맺는다.

구전설화의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전개된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姦夫와 여성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들끼리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으나 여성의 집안에서 그 약속을 깨고 다른 남성에게 시집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5편의 설화 중 4편이 앞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1편의 설화에서는 이야기의 시작이 태중혼약이 아니라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두 판서 집안의 아들이 같은 글방에 다니면서 글을 배우다가 이판서의 아들이 김판서의 딸을 보고 첫 눈에 반하게 되나 여성이 먼저 다른 남성과 혼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유형 설화들은 부모끼리 혼인을 약속하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야기와 한 남성이 다른 여성을 함모하나 여성이 먼저 다른 집안에 시집가게 되는 이야기이다. 두 이야기 중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함모하나 여성이 먼저 다른 집에 혼인하는 이야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설화 속에 드러난다. 하지만 부모끼리 혼인을 약속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설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호감을 가졌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성이 결혼한 후에 남성이 자신을 찾아

와 동침하기를 청할 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다면 이 역시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서로 호감을 가진 여성과 남성이 여성의 오빠 등의 제3자로 인해 서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에서 姦夫와 아내의 남편이 벼슬에 등용되어 조정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아내의 남편이 옛날의 일을 모른척 해 주는 경우가 있으며, 姦夫와 아내의 남편이 의형제를 맺어서 서로 잘 지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결말은 姦夫를 용서해 주는 남편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도의 차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편의 의로움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 설화의 목록을 살펴보고, 이야기의 공통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유형의 설화를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하여 수용·전승될 수 있었던 의미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 설화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부모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들의 혼인을 약속하면서 시작된다. 두 집안이 서로 혼인을 약속하였지만 약속을 파기하는 쪽은 여자의 집안이다. 그러나 여자의 집안에서 혼인 약속을 파기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성들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동서동방(同嬬同房) 이야기>에서 남녀의 혼인파기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 집안은 아주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벼슬의 임기를 마쳐도 대를 이을 수가 없어서 낙향한 반면에, 여성 집안은 아들이 3형제가 있어 아들 모두 과거에 등과하여 아버지 대를 이어가는 명문 집안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여성의 오빠들은 예전부터 혼인을 약속한 몰락한 남성보다 더 좋은 곳에 여동생을 강제로 혼인시키려 한다. <포용력 있는 판서 이야기>와 <김씨와 이씨의 혼약> 이야기

에서는 남자 집이 가난해서 여자를 다른 집에 시집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의 설화에서는 부모가 정해 놓은 인연과 혼인한다고 믿으면서 지내 왔던 남녀가 서로 혼인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집안의 형편을 고려하여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렇다고 이 설화가 집안의 명예와 재물만을 따져서 혼인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신랑의 아량> 이야기에서 두 판서 집안의 아들이 같은 글방에 다니면서 글을 배우다가 이판서의 아들이 김판서의 딸을 보고 첫 눈에 반하게 되나 여자가 먼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 이로 인해 이판서의 아들이 상사병에 걸리게 되어 혼인한 김판서의 딸을 찾으러 떠난다. '사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설화는 애정으로 맺어진 남녀 간의 관계를 깨고 억지로 혼인을 강요하는 행위가 결국 간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설화에서 姦夫의 남성이 여성을 만나기 위한 방안으로 女服을 하는 것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이미 혼인한 여성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여복을 하여 방물장수로 변모하는 것을 선택한다. 남성이 여복을 하는 것은 남성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여복까지 하는 남성의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설화의 마지막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간통한 아내의 남편이 아내와 姦夫가 동침하는 장면을 보고도 모른척하고 용서해 준다. 그리고 용서의 미덕은 후에 아내와 姦夫를 용서해 준 남편의 행위가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부각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아내의 남편과 姦夫가 서로 조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모든 설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용서해 준 남편의 훌륭한 모습을 드러내는 양상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만약에 내가 그걸 옷을 안 빗기봤다면 사람만 죽었지, 이거 집에 큰일 아
닙니까?”

카고 고마 획 나갔뿌리. 나갔뿌고 그 적시는 자기 남편이, 거 찾아갔던 남자가,

“잘했다. 너는 나보다 나은 남편을 얻었다. 내가 잘못했다. 니가 복력이다.”

카고 고마 히있뿌렀는 기라.

히이빠렀는데, 내중에 한 조정에 비실(비슬)을 했어.

(중략)

맹기는데 그래 한 날은 조용한 자리에 술좌석에 마주치 앉아가주고 이 애
길 하는데, 하기를, 서로 대감이거던.

“대감 나를 알겠습니까?”

이라거던. 이 사람이 대감 알겠습니까 카이,

“에-, 입도 개잡어(가벼워) 나는 좀 더 바랬더이만.”

정승을 거 인제 거,

“아, 이만하고 고만 마치겠는 걸.”

이카더라구만.(『韓國口碑文學大系』7-12(경북편), 포용력 있는 판서 이야기)

<포용력 있는 판서 이야기> 에서 조정에서 만난 姦夫는 예전의 일을
생각하여 여성의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모른
척 해 준다. 이 이야기에서는 간통 장면을 목격한 남편이 용서해 주는 것을
보고, 姦夫가 여성에게 자기보다 나은 남편을 얻었다고 하여 훌륭한 인품
을 칭찬한다. 여기에서 여성의 남편은 姦夫보다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큰
도량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姦夫가 여성의 남편이 훌륭한 인물임을 깨닫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남편을 부각시켜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姦夫와 여성
의 남편이 의형제를 맺어서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것이다.

“분명한 여잔데 그렇게 소동을 해가지구서 공부도 못하고 이꺼정(여기까

지) 내려오게 하느냐?”

고 그만 공부하러 그 질루 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죽은 사람이 저분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 질루 내려와서 주야(晝夜) 공부해 가지구서 등과(登科)를 했어요. 참 아다(둘이 다) 과거를 해가지구서 참 뛰여, 국가에 벼슬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서 그분더러 “성님(형님)”이라고 했어요. 그래,

“성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다 알았어요. 하마.

“에이 소인(小人)이교로.”

하면서,

“그런 소리말고 우리 그 친형제같이 지내자.”

그래 다 같이 등과를 해가지고 의형제 맺어가지구서 그렇게 잘 살고 장그렇게 이름을 부르더라요. 뭇한 사람은 그거 다 죽일전에….

(『韓國口碑文學大系』3-4(충북편), 동서동방(同嫗同房)하고도 맺은 의형제)

<동서동방(同嫗同房)하고도 맺은 의형제> 와 <신랑의 아량>, <김씨와 이씨의 혼약> 에 나타나는 이야기처럼 자신의 아내를 간통한 姦夫이지만 이러한 남성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의형제를 맺을 만큼 그릇이 크고 뛰어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설화 향유자들은 간통한 아내도 나무라지 않고 姦夫도 용서하여 의형제를 맺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가장 덕망 있는 인간형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남성의 인품이 가장 이상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또한 남편의 용서 행위는 아내에게 잘못을 따지지 않는 도량이 넓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은 남성인 姦夫를 용서해 주는 의로운 인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의로운 인물임을 말하고 있다. 아내의 간통은 가정불화의 요인이 되에도 불

구하고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간통의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 그리고 남편의 용서로 인해 姦夫 역시 벼슬에 등용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징치하고 벌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더 의로운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설화 향유층이 생각하던 가장 이상적인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통한 아내를 용서한 남편의 행위가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은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간통한 아내와 姦夫를 용서하는 행위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 설화에서 남편이 아내와 姦夫를 용서하고 姦夫와 의형제를 맺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용서로써 의로움을 베푼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화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남편은 징치하거나 벌하지 않고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해 본 ‘간통’ 과 ‘용서’ 의 실상

17세기 이후에는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여성에게는 정절 이데올로기가 강요되었다.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女不事二夫)라는 것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臣不事二君)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그리하여 여성들에게 정절을 위협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는 수절하거나 정절을 지킨 여성에게 정려문을 세워 주어 그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여성의 정절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성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재가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과거에 응시할 권한을 박탈한다는 내용 등을 법제화시킴으로서 정절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되었다.

가부장적 질서는 가부장에게 그 질서를 유지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이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며, 이 질서가 제대로 유지·작동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의 올바른 판단력과 도덕적 정당성과 유가적 의식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 토대가 요구되었다.⁴⁾ 따라서 남성들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 사회 윤리적 또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실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해야 했으며, 가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남성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도 억압의 요인이 되었다. 여성들에게 사회적 자아가 성숙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정황이 요구해온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이념적 가치를 실천하는 길만이 대안이었다.⁵⁾ 여성들은 정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며 성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흔히 ‘간통’의 이야기를 다루는 설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의 잘못된 행실을 문제 삼는 내용이 많으며, 간통한 여성들을 통해서 올바른 윤리 규범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여성들의 간통 원인과 결과는

4) 하윤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상상적 봉합」, 『한민족어문학』 6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p.234.

5)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1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5, p.99.

큰 범주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성들이 정치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결과가 마무리된다. 또 다른 하나는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분의 차이 등에 의해 강간당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여성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당하더라도 일단 정절을 훼손당했다는 것만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두 가지 경우의 이야기는 간통 또는 강간이라는 소재가 여성들의 정절 훼손 문제 이야기의 결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책임의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의 설화에서 ‘간통’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여성의 정절 훼손 문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통’을 소재로 하는 다른 설화들과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의 설화에서 여성들은 姦夫와 간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더 이상 여성의 정절 훼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姦夫와 동침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눈감아 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내의 정절 훼손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설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는 것보다 姦夫를 용서하여 후에 조정에서 만나게 되고 옛날의 일을 부끄러워하는 姦夫에 비해 용서의 미덕을 발휘하는 남편의 인물됨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에서 보여주는 ‘간통’의 의미는 아내의 정절 훼손 문제를 드러내려고 한다면보다, 간통한 姦夫를 용서해 주고 후에 조정에서 만났을 때 같은 남성인 姦夫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남성들끼리의 관계에서 남편이 의로움을 실천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⁶⁾

그렇다면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설화에서 남

편이 아내와 姦夫를 용서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姦夫와 간통한 아내의 간통 장면을 목격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내와 姦夫를 용서하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편의 용서 덕분에 아내의 간통 사건은 가정에서 문제시 되지 않고 해결되어진다. 이처럼 남성중심의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他者化되는 여성들이 소외되고 버림받는 모습을 통해 구비설화 전승자들은 부부의 삶이 실상 유교적 사회질서라는 거대담론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⁷⁾ 결국 아내의 간통 사건을 가족들에게 숨김으로써 아내의 정절 훼손을 문제 삼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던 남편의 행동은 이상적인 윤리 규범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 자신의 희생으로 가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간통한 여성을 대하는 방법으로 징치하거나 처벌하는 방법 외에 관대하게 용서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설화에서는 간통한 아내를 용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는 것은 여성으로 인해 가정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내의 간통 장면을 목격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아내와

6) 문헌설화에 보면 신분이 높은 상층 남성이 하층 여성을 마음대로 간통하지만 하층 여성의 남편은 신분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층 남성을 용서해주고 후에 하층 남성이 상층 남성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다는 유형의 설화가 있다. 이 설화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설화와 다른 내용의 이야기이지만 신분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용서와 의리라는 점에서 해결 방법은 동일하다. 하지만 문헌설화의 용서와 의리의 실현은 신분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지만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구전설화는 좀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용서와 의리를 실현하고 있어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헌설화』제4책(김현룡 저),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pp.217-221 참조.)

7) 이인경, 『기혼여성의 삶, 타자 혹은 주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6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p.280.

姦夫를 용서했던 남편의 선택은 자기의 희생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정의 평화와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내의 간통 장면을 눈감을 수밖에 없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만 억압되었던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끊임없이 강요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설화에서 남편의 용서의 행위로 인한 의로운 행동의 의미는 겉으로는 남편의 의로운 모습이 부각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윤리 규범을 강요당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V. 설화에 나타난 ‘의로움’ 의 의미

지금까지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의 설화에 나타나는 ‘간통’ 과 ‘용서’ 의 이면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설화에서 아내의 정절 훼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姦夫와 남편 사이의 관계이다.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남편이 姦夫를 용서하여 조정에서 만나 후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두 남성들 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와 간통한 姦夫를 용서해 주고 후에 조정에서 만나더라도 옛날의 일에 대해서 모른척 해 주거나 오히려 의형제를 맺는 것은 남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징치되지 않고 문제시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姦夫를 용서하는 남편의 모습과 그러한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姦夫의 모습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된다. 이 설화가

‘간통’의 소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의 핵심은 남성의 인물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혼인한 것을 알고 여복을 해서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姦夫의 모습은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한 것일 뿐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습이다. 또 아내의 간통 장면을 보고서도 가정의 평화와 명예를 위해서 모른척 해야만 하는 남성의 모습 역시 가장이 갖추어야 할 윤리규범에 따른 행위이다.

결국 두 남성의 모습은 당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볼 수 있는 남성들의 모습인 것이다. 姦夫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고 싶은 남성의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여성을 찾아가서 동침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간통’이라는 파격적인 모습을 통해 비난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혼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받지 못하고, 다만 혼인한 여성을 간통했다는 행위만으로 姦夫는 벼슬에 등용될만한 능력을 지니더라도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몇몇하지 못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姦夫의 비윤리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 이 유형의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라면 1편의 설화에서는 오히려 姦夫의 행위를 비현실적인 요소를 통해서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 그마 정지에 가서 식두칼로 갖고 그마 주그 각시허고 화장품 장사허고, 주그 바아, 엇저녁에 잔 바아로 가자는기라. 인자 찢러 직일라고, 그마 둘다 직이빌라고, 그래 화장품 장사로 옷통을 탁 벗어라 쿤께 그 화장품 장사 등어리에 칠성 별이 탁 백히져가 있다 말이라. 그래, 저 사램이 그날 저녁에 꿈을 꾸께, 하늘에 옥황선녀가 내리와갖고 말이지, 그 남자 꿈에,

“만약에 내일 아침에 불언죽 한이 있을끼니, 그 사람의 몸에다 손을 대든지 달코하든 네가 큰 화근을 당할 낀께 그리 알아라.”

그래 꿈에 선물을 허는기라. 그래서 옷통을 탁 벗기놓고 본께, 그 등어리에

칠성 별이 탁 백히가 있거든. 그래 그때사 아차 했어.

(『韓國口碑文學大系』8-14(경남편), 김씨와 이씨의 혼약)

<김씨와 이씨의 혼약> 설화는 다른 설화에 비해 후대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설화에서는 姦夫가 방물장수나 패물장수로 등장하지만 비교적 후대의 용어인 화장품 장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후대에 와서 姦夫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를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후대에 전승되면서 姦夫의 행동이 윤리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행위였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여 긍정적인 인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화는 후대로 올수록 姦夫의 행위가 반드시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잘못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간통한 아내의 남편은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다가 아내의 간통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만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간통한 아내를 쉽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⁸⁾ 후에 남편이 벼슬에 등용되고 도덕적으로 몇몇한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서 용서의 행위에 대

8) 이 설화의 유형 외에도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를 용서하는 설화’의 유형에서도 아내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남편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용서한다는 행위만으로 두 설화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 해산한 아내를 용서하는 설화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윤리를 지켜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간통한 아내를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다’의 설화에서는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姦夫라는 제3의 인물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제33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는 언급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도 부부 간의 갈등 문제의 해결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능력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떳떳한 인품을 지닌 남편의 모습은 사회적으로는 추앙받는 인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갈등의 문제를 윤리 도덕적인 모습으로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부부 갈등의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이 간통한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아내가 간통한 姦夫가 자신과 혼인하기 전에 서로 혐모했던 남성이라는 점에서 남편은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로 혐모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러한 여성을 잊지 못하고 여복을 해서라도 찾아오는 과감성을 보여주는 姦夫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은 징치하지 못했음지도 모른다. 후에 남편이 姦夫와 의형제를 맺는다는 것을 보아도 姦夫의 간통의 행위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남편의 의로운 행위만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간통이라는 행위만으로 비판받는 姦夫의 모습과 윤리 도덕적으로 떳떳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남편의 모습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가는 남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서와 훌륭한 인품으로 가려진 남성들 간의 의로움의 모습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덕망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기준일 뿐이다. 그러나 이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끊임없이 도덕적 가치를 강요받았던 남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기’ 유형의 설화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절을 강요당하던 여성 외에도 남성들 역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용서를 통한 ‘의로움’의 행위는 두 남성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다’의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의로움의 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설화가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통한 아내와 姦夫를 용서할 수 있는 남편의 훌륭한 인품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넓은 도량으로 용서하는 너그러운 모습을 가진 이상적인 인물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통한 아내와 姦夫를 나무라지 않고 용서하는 남편의 행위가 높이 평가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과연 남편은 간통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 그 잘못된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남편의 너그러운 모습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인물형일 뿐이다. 또 姦夫를 용서하고 조정에서 만난 이후에도 눈감아주는 남편의 모습은 남성들 간의 의로움을 실천한 것으로 이 역시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다’의 유형 설화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빼고 설화를 살펴본다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남성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여복을 하면서까지 노력했던 姦夫의 모습은 간통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간으로 낙인찍혀 버렸고, 아내의 간통 장면을 목격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가정의 평화와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아내와 姦夫를 용서하는 것으로 자신을 희생했던 남편은 모습은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두 남성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 외에도 남성 역시 윤리 도덕의 규범을 강요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설화 중에서 간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으며, 간통한 여성에 대해서 용서하는 유형의 설화들도 있다. 지금까지 간통에 대한 이야기에서 여성들이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러한 설화들을 본다면 그 속에 가려진 남성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다’ 설화의 이면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은 더 나아가 이와 비슷한 다른 설화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화 속에 나타나는 ‘간통’의 의미가 무엇이며, ‘용서’ 하는 행위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口碑文學大系』(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 『韓國口碑文學大系』별책부록(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한국문헌설화』제4책(김현룡 저),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 하운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상상적 봉합』, 『한민족어문학』 제6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pp.215-249.
- 홍나래, 『간통 소재 설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_____,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pp.197-226.
- 이인경, 『기혼여성 삶, 타자 혹은 주체: 구비설화로 본 이면적 진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pp.251-283.
- 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 2003.
- 최기숙, 『‘관계성’ 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0권, 한국여성문학회, 2003, pp.243-275.
-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12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5, pp.63-104.

Abstract

The Other Side Meaning of Righteousness(義) Shown in Tale Titled 'Forgiving Adulterous Wife'

Ryu, Myeong-Ok

This study will consider what its meaning is through tale titled 'forgiving adulterous wife and meeting adulterer(姦夫) in mediation' out of a tale type dubbed 'Forgiving Adulterous Wife.' The important contents in this tale include what a husband of having witnessed wife's adulterous scene reveals excellent personality of forgiving the wife and the adulterer and what the adulterer and the husband mutually form brotherly ties through the husband's this righteous behavior. However, this image is just what is evaluated as an ideal figure in patriarchal ideology. Its actual condition is shown differently.

The image of adulterer, who was cancelled a promise of marriage unilaterally, is being evaluated as a figure who fails to be understood and to be moral due to the act of committing adultery. And what is suppressed and forced amid the patriarchal ideology could be known to have been very difficult to be endured even by men as well as women through the image of the husband, who is evaluated as a figure of having excellent personality ethically and morally with sacrificing himself for honor of the family and of being compensated all the behaviors.

Also, the meaning in 'adultery' and 'forgiveness,' which are indicated in the tale titled 'forgiving adulterous wife and meeting adulterer(姦夫) in mediation,' was the material for revealing the image of men, who had been suppressed ethically and morally in the middle of patriarchal ideology and is containing a meaning of being positive in all the images of two men. Accordingly, the meaning of righteousness, which is revealed in the tale, will be able to be confirmed through the tale as saying of being contained the image of men, who are forced to practice the ideally moral norm amid the

patriarchal ideology, in the hidden side, as well as highly evaluating the image of a man who did excellent behavior ethically and morally.

Key Word : adultery, justice, This area of the subject, excuse.

류명옥

소속 : 경북대학교 강사

주소 : (705-751) 대구시 남구 봉덕2동 효성타운 101동 408호

전화번호 : 010-9378-1647

전자우편 : eden2020@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
--